

05

해외 통상 애로

2024 수출입 관세 조정 활용 방안

- 중국을 중심으로 -





2024 수출입 관세 조정 활용 방안 - 중국을 중심으로 -



황수한
한국원산지정보원 전문연구원

1. 무역 원활화를 위한 중국 동향

중국 경제는 서비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내·외부 불확실 요인으로 인하여 2024년 경제 성장률은 살짝 더딘 편으로 분석되고 있다.

리오프닝 효과와 더불어 화장품·신발·의류 품목에 대한 소매 판매 증가율이 상승하였고, 특히 자동차 소비 증가율이 개선되면서 코로나 충격으로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개선 세를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3년 6월 2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필리핀에서 발효됨과 동시에,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된 한-중 FTA는 올해 10년 차를 맞이하였다. 한-중 FTA에 따라 중국 대한민국 수입 71% 품목(2012년 협상 당시 HS 8단위 품목 수 기준)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되어 있다.

다수의 품목이 MFN 세율보다 한-중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23년에는 잠정 세율을 적용했으나 2024년에는 MFN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품목을 예로 들면, 한국산에 적용하는 한-중 FTA 세율은 2024년의 MFN 세율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의 잠정 세율보다도 수입 관세율이 낮다.

관세청에 따르면, 변경된 세번·품목분류 착오·유리한 세율 적용 불인지 문의 등으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수출 기업들이 가장 유리한 세율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격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지만, 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국내 대중국 수출기업은 복잡한 중국 관세율로 인한 혼란스러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품목군들 중 특히, 전기·의료·계측·음향기기 등을 취급하는 국내 대중국 수출기업들이 세율 변동 비교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법(2024)」이 공포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3년 대비 수입 관세율 변화 등을 살펴보고, 우리 수출 기업들의 대중 교역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2. 중국 수입 관세 변화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2024년판 관세 조정 방안과 수출입 세칙에 따라 수입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첫 번째로 2024년 중국 수출입 세칙 세목 수가 조정되었다.

* 전년도(2023년) 대비 9개 증가(8,948개 → 8,957개)

세부적으로는 (1)장식원지(装饰原纸)와 식물성 단백질 세목, (2)이산화티타늄, 비



합금강판압연재, 철도용·궤도용 기관차 부품 등의 HS코드를 조정 및 구체화, (3)무선전화기(HS 8517.7930)의 명칭을 “스마트폰 및 기타 무선전화기”로, 향료·의료용 식물의 주석을 수정하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2024년부터 중국의 HS 코드(세번)이 변경되어 기업들이 수출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한 품목

연번	조정 내용	품목	2023년판 HS코드	2024년판 HS코드
1	세목 추가	장식원지 (装饰原纸)	HS 4805.9190 (기타)	HS 4805.9120 (장식원지)
2	구체화, 세목 추가	식물성 단백질	HS 3504.0090 (기타 펩톤)	HS 3504.0020 (식물성 단백질)
3	HS코드 조정, 세목 추가	이산화티타늄	HS 3206.1110	루타일 함량 \geq 99.8%일 경우 HS 3206.1111 기타 제품은 HS 3206.1119
4		비합금강판 압연재	HS 7208.5120	항복강도 \geq 500N/mm ² 의 제품 HS 7208.5121 기타 제품 HS 7208.5129
5		비합금강판 압연재	HS 7208.5190	항복강도 \geq 500N/mm ² 의 제품 HS 7208.5191 기타 제품 HS 7208.5199
6		비합금강판 압연재	HS 7209.1690	신장률 \geq 40%의 제품 HS 7209.1691 기타 제품 7209.1699
7		비합금강판 압연재	HS 7209.1790	신장률 \geq 38%의 제품 HS 7209.1791 기타 제품 7209.1799
8		비합금강판 압연재	HS 7210.4900	인장강도 \geq 440N/mm ² 의 제품 HS 7210.4910 기타 제품 HS 7210.4990
9		철도용·궤도용 기관차 부품	HS 8607.9900	차체·새시 루프·페달용 제품 HS 8607.9910 기타 제품 HS 8607.9990

자료: 2024년 수출입 세척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둘째로, 잠정 수입 관세가 변동된 품목이 발생하였다. 주로 농수산물, 자원형 제품, 의약품 및 원료 등에서 '0%'의 잠정 수입 관세율 혹은 MFN보다 낮은 잠정 수입 관세율을 적용한다.

중국의 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2024년 기준 총 1,010개이며 산업 고도화 수요에 맞춰 자원형 제품, 의약품 및 원료, 첨단 제조 설비 및 부품은 물론 임플란트 등 의료 기기, 농수산 식품, 기저귀, 스키 용품, 삼푸 등 소비 수요가 왕성한 소비재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용·재배용 종자(단옥수수, 고수, 우엉)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에 발맞춰 0%의 잠정 세율을 적용하며, 유제품을 주요 단백질 원료로 하는 특수 의료용 조제 식품 역시 0% 잠정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중국을 대상으로 한 국내 수출 기업들이 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여 유리하게 수출할 수 있는 품목

(단위: %)

연번	HS CODE	품목	2024년 MFN 세율	2024년 잠정 세율
1	0712.90.99	재배용 단옥수수	13	0
2	0909.21.00	재배용 고수	15	0
3	1211.90.39	재배용 우엉	6	0
4	1901.90.00	유제품을 주요 단백질 원료로 한 특수 의료용 조제 식품	10	0
5	2529.21.00	형석(불화칼슘 함량 ≤97%, 비소 함량 ≤0.0005%)	3	0
6	2529.22.00	형석(불화칼슘 함량 >97%, 비소 함량 ≤0.0005%)	3	0
7	2827.39.10	염화리튬	5	0
8	2844.43.90	항암제 원료	5	0
9	2845.90.00	항정신성 의약품 원료	5	0
10	2845.90.00	항암제 원료	5	0
11	2921.49.90	항우울제 원료	6.5	0
12	2932.99.90	항암제 원료	6.5	0
13	2933.19.90	항암제 원료	6.5	0



연번	HS CODE	품목	2024년 MFN 세율	2024년 잠정 세율
14	2937.50.00	희귀병 치료제 원료	4	0
15	3823.19.00	식물성 기름 탈취 증류물(DD유)	16	10
16	3824.99.99	조제 수산화니켈코발트	6.5	0
17	6815.13.90	연료전지용 가스확산층	17	9
18	8112.92.10	게르마늄	3	1
19	8112.92.30	인듐	3	1
20	8112.99.10	게르마늄 제품	3	1
21	8112.99.30	인듐 제품	8	1
22	8482.10.10	절연 자동 조심 볼 베어링 (고속철도용)	8	4
23	8502.20.00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하는 점연식 내연기관 발전기 모듈	10	5
24	8524.91.90	터치스크린 액정 모듈 (태블릿 PC와 노트북 전용)	5	0
25	8539.32.40	노광공정 설비용 수은램프 (출력 ≥ 1kW)	8	4
26	9032.89.90	노광공정 설비용 전기장치 제어기	7	3

자료: 2024년 수출입 세칙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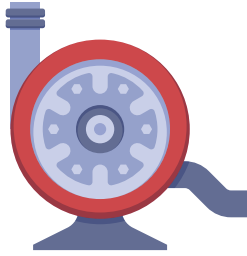
한편 2023년에는 잠정 수입 관세율을 적용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MFN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역시 존재한다. 농수산 식품(은행 열매), 석탄류, 에틸렌 등 화학 제품, 유리 제품과 기계 설비 및 부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중국을 대상으로 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잠정세율보다 높은 MFN세율을 적용하여 수출 시 유의할 필요가 있는 품목

(단위: %)

연번	HS CODE	품목	23년 잠정세율	24년 MFN세율
1	0802.99.10.	은행 열매	20	25
2	2701.11.00.	무연탄	0	3
3	2701.12.10.	코크스탄	0	3
4	2701.12.90.	기타 유연탄	0	6
5	2701.19.00.	기타 석탄	0	5
6	2701.20.00.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 등	0	5
7	2702.10.00.	미응결 갈탄	0	3
8	2702.20.00.	응결형 갈탄	0	3
9	2705.00.00.	석탄가스/수성가스 등	1	5
10	2901.21.00.	에틸렌	1	2
11	2901.22.00.	프로필렌	1	2
12	2905.32.00	프로필렌글리콜	3	5.5
13	2926.10.00	아크릴로니트릴	3	6.5
14	2930.40.00	메티오닌	5	6.5
15	3801.10.00	인조흑연	3	6.5
16	3902.10.00	폴리프로필렌	3	6.5
17	3907.70.00	폴리락트산	3	6.5
18	7006.00.00	액정 유리 기판 6세대 (1,850mm×1,500mm) 및 그 이하	6	10
19	7014.00.90	신호용 유리 제품	9	15
20	7018.90.00	유리 의안/유리 장식품	10	15
21	7020.00.11	전도성 유리	7	10
22	8112.92.20	바나듐질소합금 (분말/스크랩 포함)	0	3
23	8408.20.90	세단(출력 ≥ 50kW)용 디젤 엔진	20	25
24	8413.60.40	스크류 회전 펌프	6	10



연번	HS CODE	품목	23년 잠정 세율	24년 MFN 세율
25	8414.10.00	진공 펌프 (반도체 제조용 제외)	5	8
26	8414.90.20	팬/통 풍커버/순환기 커버 부품	6	7
27	8416.20.90	브롬화리튬 에어컨용 복식 연소기	5	10
28	8417.80.90	열분해로	5	10
29	8433.59.20	면화 수확기	5	8
30	8449.00.20	스핀레이스 설비	6	8
31	8478.90.00	연(담배)초 가공설비 부품	5	8
32	8482.99.00	롤러 베어링의 기타 부품	3	6
33	8483.30.00	볼/롤러 베어링 미장착 베어링 홀더	4	6
34	8531.80.90	항공기용 스트로보 램프	상반기: 1 하반기: MFN 0	0
35	8708.40.99	기타 자동차 자동변속기용 토크컨버터	3	6
36	8708.40.99	기타 자동차 자동변속기용 알루미늄 밸브	3	6

자료: 2024년 수출입 세칙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재정리

3. 중국 해관총서 정책 방향

중국 수출의 경우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중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분절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미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성장세 둔화가 수출 개선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아세안 회원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관련 국가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IT 경기가 개선되면서 신흥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고 신에너지자동차, 태양광 전지, 전기차 배터리 등 주력 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수입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다만 IT 경기 회복 등으로 수출이 소폭 개선되면서 관련 중간재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무역 수지는 수출과 수입 모두 반등하면서 전년 수준의 흑자 규모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상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다변화 확대, 중국 제조 기업의 현지 생산 추진(동남아시아 등)과 같이 중국 수출입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이 수출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4. 중국과 교역 시 유의 사항

에틸렌, 프로필렌 등 화학 제품, 진공 펌프, 면화 수확기 등 기계 설비는 잠정 수입 관세율 품목 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2024년에는 MFN 세율을 적용하므로 사실상 수입 관세율이 인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국내 수출 기업들은 세율 변동을 유의하며 FTA를 활용해야 한다.

이처럼 중국은 자국 산업 상황에 맞춰 수입 관세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들은 중국 산업 동향과 정책 기조를 예의 주시해야 하며 중국 내 수급, 산업 발전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